

자기 자신 부족한 줄 모르고 왜 세상을 탓하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여섯 번째 주제법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취기도법’

봉은사 봉축특집 크스님 초청 특별법회가 4월 29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성료했다. 혜총 스님은 “자비광명의 등, 마음의 등을 밝혀 무명의 세상을 밝히자”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이날 △욕정에 휘말리지 마라 △세상과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성공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라 △작은 성공이나 실패에 매달리지 마라 △자기 행동, 말, 생각을 들여다보며 충분한 휴식을 가져라 △성공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갖지 마라 △하는 일에 의구심과 망설임을 갖지 마라 △항상 진실하여 실패,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릇된 방식으로 이익과 명성을 얻지 마라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는 성공하는 법 10가지를 소개했다.

부처님의 일생 읽고 또 읽어

‘부처님처럼 마음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곧 부처님입니다. 나도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니까? 고대마 싯달라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여래의 덕성과 지혜의 덕성을 구현했지만 망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중독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깨달음’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깨달음의 진리를 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다고 해도 부처님 생애는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자유인 되는 것이 ‘무소유’

불교는 ‘의식’의 종교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데서 답이 나옵니다. 선재동자는 53선지식을 친견하고 부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53선지식만 선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선지식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앉아있는 방식도 선지식입니다. 불사문중 불사일행(佛事門中 佛事一法)입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일에는 한 번도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생로병사에 벗어나서 완전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부처님, 법정 스님 등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생로병사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로병사를 소유했습니다. 8만 4000가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유했습니까? 정말로 소유했다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성공의 10가지 비결

부처님은 성공의 비결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욕정에 휘말리지 마라. 욕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욕정이 없



면 사회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세는 날아다닙니다. 욕정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새끼들이 자랄 수 있으면 새끼에게 머물지 않고 떠나 버립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날아 다니는 것입니다. 꺼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재물, 벼슬 3가지를 다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 영웅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기스칸도 대통령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가져도 죽 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얻지 못한 무지한 중생이 윤회전생(輪廻轉生)하게 되는 6가지 세계 천상(天上), 인간(人間), 아수라(阿修羅), 아귀(餓鬼), 축생(畜生), 지옥(地獄) ‘육도(六道)’가 있습니다. 욕정에 휘둘리면 아수라·아귀·축생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둘째, 세상과 삶을 미워하지 마라.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데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당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행복하기만 한 곳에는 불법이 필요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세상을 탓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부장이 어떻고...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은 살만합니다.

셋째, 성공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라. “아 너무

행복하다. 아!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다” 자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작은 키에 집착했습니다. 도반 스님들은 모두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태어났을까.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실로 키를 키우고자 고심 끝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장에서 두 다리가 잘린 사람이 타이어 조각에 의지한 채 시장바닥을 기어다니다 동냥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강이가 난 몸을 땅바닥에 대고

키로 태어날 것입니다. 넷째, 작은 성공과 실패에 매달리지 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게 됩니다. 이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이 큰 공이고, 공부입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휴식을 가져라. 자신의 말, 행동, 생각,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잡할까. 육근에 끄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밤도 낮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엔 밤대로 할 일이 있고, 낮에는 낮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낮에 할 일, 밤에 할 일 모르는 사람이 허둥지둥 사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맞게 자신의 할 일을 수처작주(隨處作主)의 길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마라. 뜻이 결정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의 삶이 향기로운 삶입니다. 일곱 번째, 일의 도중에 의구심과 망설임 없이 돌진하십시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가 바로 그 말입니다. 벌이 끝을 따라 갈 때 향기에 취하고 꿀맛에 취하면 벌은 꿀을 따 집에 돌아 올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맛에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도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 상대가 내게 혹독하다면 내가 그리 만든 것

다니며 물건을 사달라고 기어 다니는 사람에 비하면 난장이면 어떻고 땅꼬마라고 놀림을 당한 들어 땡겼느냐는 생각이 납니다. 행복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우람하고 큰 것이 좋아보였는데 나이가 드니 작은 것이 더 좋습니다. 커서 좋은 것은 남이 볼 때 봐주는 것 뿐입니다. 몸뚱이는 역시 별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작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아만심이 많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짙어지면 다음 생애에 작은

키로 태어날 것입니다. 넷째, 작은 성공과 실패에 매달리지 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게 됩니다. 이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이 큰 공이고, 공부입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휴식을 가져라. 자신의 말, 행동, 생각,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잡할까. 육근에 끄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밤도 낮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엔 밤대로 할 일이 있고, 낮에는 낮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낮에 할 일, 밤에 할 일 모르는 사람이 허둥지둥 사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맞게 자신의 할 일을 수처작주(隨處作主)의 길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마라. 뜻이 결정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의 삶이 향기로운 삶입니다. 일곱 번째, 일의 도중에 의구심과 망설임 없이 돌진하십시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가 바로 그 말입니다. 벌이 끝을 따라 갈 때 향기에 취하고 꿀맛에 취하면 벌은 꿀을 따 집에 돌아 올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맛에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벌이 끝을 따듯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삼매(三昧)’입니다.

여덟 번째, 항상 진실하여 실수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라. 마음에 진실하고 말에 진실하고 몸짓에 진실하면 모든 사람이 추앙합니다. 봄은 봄답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하고, 가을은 가을답고, 겨울은 겨울다울 때 유정부정이 사계절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마음, 말, 몸짓을 하고 사는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한 번 화살을 맞을지언정 두 번은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패,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홉 번째, 그릇된 행동과 방식으로 이익과 명성을 얻지 마라. 철저하게 계율에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계율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고 부처님이 되는 길,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제1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에 걸린 동물을 저렇게 살처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열 번째, 자신은 높이고 타인을 경멸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고 했습니다. 사람은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0원 어치 사랑을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왜 100원어치 밖에 사랑을 안 주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존경하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바라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주려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혹독하고, 형제간이 혹독하고, 이웃이 혹독하다면 내가 저 사람을 혹독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이상인·천진영 기자

혜총 스님은?

1943년 경남 충무에서 태어나 1953년 통도사에 입산. 보경 스님을 은사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계. 해인사와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1964년 지호 스님에게서 건당(建幢) 자운 스님을 40여년 모셨다. 현재 대한불교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총재, 감로사 주지, 대한불교사회복지 연구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저서<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사백처럼 깨어 있으라) 등.

몰랐다. 이토록 확실한 완치법인 줄은!



신비한 벌치요법시술

흘러 지나쳤던, 미심쩍던, 그러나 현대과학에 의해 그 미증유의 치유 메커니즘이 속속 규명되어 마침내 동서의학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른 벌치요법의 경이로운 효능! '어떤 질병도 반드시 치유법이 있다'는 고래(古來)의 명제에 닿아있는 순기능적이고도 강력한 천연의약, 그 천혜의 치유법에 관한 제대로 된 독보적 텍스트!!

쉽고도 오차없는 완벽시술을 위한 기획! 따라 해보세요, 놀랍도록 낫습니다

▶교본1권(개요 및 질환별 시술법)+▶DVD4장(교본(책)의 한계성을 극복, 질병별로 치유력 극대화를 꾀한 최적의 시술법을 누구나 쉽고 정확히 배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 시술교과제// 강철형(대한벌치요법연구소)편저// 장여분 특별보급가 14만원(정가 32만원)*시술용 벌(꿀벌)은 시술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연락하시면 별도 우송도 해드립니다.

—수룩 질병—
관절통·관절염·디스크(허리·목)·요통·팔다리·손발 차고 저림/ 견비통(오십견)/ 엘보우(상지통)/ 우울증/ 불면증/ 치매/ 각종 두통/ 간질/ 각종 신경통· 신경쇠약/ 안면신경마비// 간염/ 간경화/ 변비/ 위경련/ 위염·설사·위·십이지장궤양/ 장염/ 신경성소화불량/전립선염/ 방기부전/ 조류/ 불임/ 냉대하(생리불순·생리통·자궁내막염)// 감기/ 기관지염/ 천식/ 편도선·후두염// 당뇨/ 비만/ 갑상선염/ 유선염// 고혈압/ 저혈압// 방광염/ 아노증/ 요실금// 잇몸질환·치통/ 치질/ 알레르기비염·축농증/ 안과질환(백내장·녹내장)/ 난청/ 어지럼증·귀울림/ 중이염/ 무좀/ 습진/ 티눈/ 탈모/ 기타 질병

제대로 한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라. 반드시 신봉자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벌치요법의 임상적 응용은 급속 확산 추세이며, 많은 의사들에 의해 임상적 효과가 확인되었고 과학적 연구도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각종 난치병 치료에 활용 가치가 충분하며, 비윤리적이고 시술법이 간단하다는 장점 등은 이에 대한 연구와 임상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벌치요법의 질병별 치료법과 경험법이 담긴 본 신비한 벌치요법은 벌치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전세일(포천중문의원 대외의학과대학원장)-
"벌치요법은 벌침의 물리적 작용과 벌침액의 화학적 작용이 이루어져 일침(一鍼) 이구(二灸) 삼맥(三藥)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강력한 소염작용을 비롯 청혈, 용혈, 신경부활, 살균, 조직생성 작용 등의 효과를 낸다. 벌치요법의 효과는 통증을 막론하고 속속 밝혀지고 있고 난치병 해결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수(실로암한의원원장)-
"벌침이 세포 내 염증 신호전달경로와 연계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염증을 막아준다" -경희대·자생한방병원 연구팀-
"류마티즘, 만성관절염, 패혈병, 악성종양의 치료에 벌독을 사용한 결과 98% 이상의 경이로운 효과를 얻었다" -부로드(연변의학사·미국) '벌독(BEE VEONOMI) 중재-벌침은 화학약품과는 달리 가장 안전하며 이보다 훌륭한 주사침은 어디에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구할 수 없다" -Roy, J. Rencel(미국 의학자)-
"경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벌침액은 화학항생제보다 약효가 1,200배나 높아 대지와 소의 염증성 질환을 조기 치료했고, 생체면역 및 생체리듬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질병발생 감소로 인한 생리작용 활성화로 경제 수명연장 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남뉴스-

전화하시면 우송해드리며 대금은 수령·검토 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주문 : T.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빙 안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1년에 1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중안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사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